

도내 초등 저학년 대상 ‘한글책임교육’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실천 중심 한글지도 심화연수… 초등 교원 12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저학년 대상 한글책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치명자산 평화의전당에서 실천 중심 한글지도 심화연수를 운영했다.

앞서 초등 1~3학년 교사 4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기초 연수가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뤄졌다.

초등 1~2학년 담임 교사 및 한글책임교육 기본 과정 이수 초등교원 120

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화연수는 이론과 실제를 융합한 실천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이경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이해영 전주신동초 수석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한글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오는 9월부터 실행 중심 연수를 운영해 현장 적용력과 실천 중심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한글 책임교육은 단순한 읽기·쓰기 지도를 넘어 모든 학생의 문해력을 책임지는 국가적 약속이자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원 연수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 자신감과 기초학습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여름방학 학력신장캠프’ 성료

과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됐다.

전주교육대학교는 2025년도 여름방학 학력신장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2박 3일씩 2회차로 나눠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교

과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됐다. /장은성 기자

“교육, 정치의 수단 아니다”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전북교육 논란에 입장문 내고 비판

전북특별자치도 학부모회협의회가 최근 전북교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교육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낙마 이후 정책 계승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

교육의 주인은 배움의 터전에 있는 학생”이라며 “교육을 권력 싸움의 도구로 삼거나 주인공세를 하며 현장을 혼드는 일이 없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감 낙마 이후 정책 계승 여부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에 대해 “정작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할 아이들과 학부모는 논쟁의 바깥에 서 있는 느낌”이라며 “교육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으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고 비

판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진로진학 확대, 교권 보호 등 긍정적 변화를 제감한 학부모도 많다”며 “정책의 유무보다 실효성과 현장 의견, 학부모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밝힌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원칙에 공감함을 표하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교육의 연속성과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 학부모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넓혀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상반기만 아이돌봄 전문인력 104명 배출

전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올 제3차 표준과정 수료자 양성 ‘선 채용-후 교육’ 방식 도입… 현장 맞춤형 돌봄 인력 확보

전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병수)가 제3차 아이돌봄 인력양성교육 표준과정을 마치고 총 2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로써 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만 세 차례 교육을 통해 모두 104명의 아이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기존의 ‘선 교육-후 채용’ 방식에 더해 ‘선 채용-후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아이돌봄센터에서 인력을 선발한 후, 이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졌다.

표준교육과정은 아동학대 예방, 상황별 응급처치, 발달단계별 아



동 이해 등 총 100시간의 이론과 20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됐다.

김병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아이돌봄 인력이 배출돼 중장년층의 경력 단절 해소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 확보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초·중 교원임용시험 공금증 해소하세요”

전북교육청, 18일 공개 설명회… 응시생 유의사항 등 사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교원임용시험에 관심 있는 응시예정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시험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과 민원 사례 등을 안내해 시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을 통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합격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합격을 말하다’ △원서

접수용 사진 촬영 체험 △중등 체육 실기평가 구기종목 체험 등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링크(<https://m.site.naver.com/1M20i>) 또는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성명, 연락처, 대상 구분, 사전 질의사항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면 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원임용시험의 공금증을 해소하고, 응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원임용시험에 관심있는 사람은 적극 참여해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수교육지도사 소통·협력 강화

전북교육청, 오늘까지 워크숍… 현장 경험 등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6일 이틀간 전주 상관리조트에서 특수교육 지도사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수교육지도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은 그림책을 활용한 장애공감 교육, 매쉬유 바로 쓰는 짧은 영상 제작 강의와 실습, 아로마 테라피를 통한 자기 관리 및 마음 치유, 교실 놀이 및 연수자 참여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교육연수원, 희소교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개최

전주대학교 교육연수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희소교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실시간 원격 강의와 대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자격연수는 변화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 인성, 실천력을 고루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3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는 총 100시간(기본역량 38시간, 전공역량 62시간)으로 구성, 최신 교육과정과 실무·이론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과목별로 현장 전문가와 대학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AI, 에듀테크,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필수 역량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연수생 모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동료 교사 간의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복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교육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몽골 울란바토르

날라이크구와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몽골 울란바토르 날라이크구청과 교육·의료·문화·지역개발 등 전방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광대가 추진 중인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을 몽골 현지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협약식은 지난 1일 울란바토르 날라이크구청에서 열렸으며, 박성태 총장과 나인바야르 다시제브그 날라이크구청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날라이크구 우수학생 추천 및 교육과정 제공 △의료봉사·보건교육 활동 전개 △날라이크 시청 공무원 대상 단기 연수 △한·몽 문화교류 프로그램 추진 △지역개발 협력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세부 실행 계획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